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12(금) ~ 2024.1.18(목)

제공일시 2023 03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12(금) ~ 2024.1.18(목)

제공일시 2024 03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美 환경보호청, '메탄배출 감축' 위한 세금 신설 예고

-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메탄 배출세'라는 이름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계획임을 예고함
-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메탄배출량을 규제하고, 규제 한도를 어기는 경우 벌칙금 형태로 '폐기 메탄 부담금'이라는 세금을 올해부터 매기는 방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함
- 올해부터 메탄배출량 1메트릭톤당 900달러(약 118만원)를 부과하기 시작해 내년에는 1200달러(약 157만원), 내후년에는 1500달러(약 197만원)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1.15) 김현철 기자

2. 프랑스, 신규 원전 건설 늘린다

- 프랑스 정부가 원전 건설을 확대할 방침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모습임
-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새로 짓는 원전 수를 기존 6기에 8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오는 2035년까지 총 14기 원전을 새로 건설하겠다는 것임. 프랑스는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임
- 프랑스는 자국 에너지 믹스에서 현재 60%를 넘는 화석연료 비중을 2035년까지 40%로 줄이겠다는 목표 하에 원전 의존도를 늘리고 있음

(더구루 2024.1.13) 홍성환 기자

3. '흑연 수출통제' 나선 중국, 한국 배터리업체들엔 수출 허가

- 중국 정부가 작년 12월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의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한국 주요 배터리 기업으로의 흑연 수출은 허가한 것으로 전해짐
-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순 배터리 소재업체 포스코퓨처엠으로 공급될 음극재 제조용 구상흑연의 수출을 승인함. 중국 정부는 또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완제품을 만드는 한국 배터리 3사로의 흑연 음극재 완제품 수출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짐
-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미중 양국 정상이 '양국 관계 안정화'를 강조했고, 한중 양국 역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어 중국이 당장 '수출 불허'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함
- 다만, 중국이 수출 통제를 앞세워 핵심 광물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만큼 향후 미중 관계를 비롯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수출 제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봄

(연합뉴스 2024.1.14) 차대운 기자

4. '대만 반도체 지원법' 시행 임박, 라이칭더 당선으로 TSMC에 더욱 힘 실린다

- 대만 정부가 TSMC 등 자국 반도체기업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대만판 반도체 지원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자가 반도체산업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한 만큼 TSMC를 향한 정부 지원정책에도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15일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2월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원하는 반도체기업의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힘. TSMC와 미디어텍, 리얼텍 등 대만 주요 반도체기업이 신청서 제출 의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됨
- 대만판 반도체 지원법이라 불리는 새 정책은 매년 연구개발에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는 기업이 연구비의 최대 25%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임

(비즈니스포스트 2024.1.15) 김용원 기자

1.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손질 예고... 예상배출량→절대량 변경 검토

- 환경부는 사업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함
- 개선 방안의 목표는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의 정합성을 위해 절대량 방식의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것임
- 현재 사업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예상배출량(BAU)'을 구한 뒤 감축률을 곱하도록 돼 있음. 반면, NDC는 2018년 기준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절대량을 관리함
- 다만,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문별로 관장하는 부처가 달라 발전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송은 국토교통부가 맡는 식임. 이 때문에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업종과 부문별로 관리부처의 감축 여력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감축 가능성을 고려한 목표를 제시할 방침임
- 또, 계획기간 신규 도입, 이월 및 차입 등 유연성 확보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설계함. 배출권 거래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등 다른 감축제도와의 연계도 모색함

(전자신문 2024.1.16) 최다현 기자

2. 닷 올리는 공급망기본법... 정부, 기금 5조원 조성 착수/공급망 3법 완료... “배터리 업계 내재화율 높여야”

- 오는 6월 ‘공급망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최대 5조원의 기금 조성 절차에 착수함
-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에 필요한 정부 보증 규모를 5조 원으로 보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보증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임
- 기금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쓰임
- ‘공급망 3법’ 입법이 모두 완료되면서 관련 업계에서 수직계열화 지원 등 내재화율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향후 중국 등 핵심광물 공급 측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망 3법 등 정책적 지원 방향 역시 수입 다변화나 자원 비축보다 내재화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림

(연합뉴스 2024.1.16) 송정은, 박원희 기자

(디지털투데이 2024.1.16) 석대건 기자

3. 중기부, ‘CBAM 대응 전담 조직’ 만든다... ‘인프라 지원’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탄소중립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부내 전담 조직 설치를 검토함
- 중기부는 먼저,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고, 경영애로 부담을 덜기 위해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함. 또,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때 두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정·세제를 지원함
-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 가치사슬 전(全)주기에 대한 전사적 혁신 활동을 지원함

(뉴스1 2024.1.11) 이민주 기자

4. 내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지 2개소 구축

- 내년 중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한 청정수소 생산기지 2개소가 구축됨
- 2개 수소 생산기지가 추가로 가동되면 국내 하루 수소 생산량이 1000kg 늘어날 전망이다
- 환경부는 11일 공고를 통해 ‘2024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힘. 모집 대상자는 지자체운영사업자 1개소와 민간운영사업자 1개소임

(이투뉴스 2024.1.11) 유정근 기자

1. GE, 미국 최대의 풍력 프로젝트 수주... 10년 안에 풍력 터빈 기술자 45% 증가

- 제너럴 일렉트릭(GE)이 미국 최대의 풍력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해상풍력과는 달리 육상풍력의 업황이 호전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인팩트온 2024.1.11) 송준호 기자
- GE는 9일(현지시각) 자사의 에너지 사업부가 서반구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수백개의 개의 터빈을 제작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힘
- GE가 수주한 프로젝트는 '선지아(SunZia)'로, 미국의 발전기 및 기타 장비 제조업체인 패턴 에너지(Pattern Energy)가 주도하고 있음
- 선지아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대형 풍력발전소에서 애리조나주까지 이어주는 송전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임. 3.5기가와트(GW)의 풍력 단지과 885km의 송전선로가 건설될 예정임

2. 블랙록, 대체인프라 투자회사 GIP 인수

- 블랙록은 탈탄소화, 에너지 안보, 디지털 인프라, 공급망 전환 등에서 인프라 투자기업으로 유명한 GIP(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를 125억달러(약 16조3812억원)에 현금 및 주식거래로 인수한다고 발표함 (ESG투데이 2024.1.12) 마크 시걸 기자
- GIP는 에너지, 교통, 디지털, 수자원 및 폐기물 부문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인프라 주식과 신용 전략 등 1000억달러(약 131조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의 독립 인프라 운용사로, 다수의 주요 재생에너지 기업 및 폐기물 업체를 보유 중임
- 블랙록은 12월 2024 사모시장전망에서 저탄소 전환을 주요한 테마로 잡고,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본 재분배'를 강조하면서 인프라를 주요한 투자기회로 꼽은 바 있음

3. 中 빠져나가는 애플... 에어팟 제조사, 베트남에 공장 개설

- 애플의 에어팟을 제조하는 중국 기업 고어텍(Goertek)이 한국 기업이 들어선 베트남에 공장을 개설할 예정임 (세계일보 2024.1.16) 현지용 기자
-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음향 부품 전문사이자 애플의 에어팟 및 헤드셋 등을 생산하는 고어텍은 베트남 박닌 성에 새 공장을 지을 예정임
- 고어텍의 이번 투자는 애플이 더 많은 생산을 위해 공장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나왔음

4. 테슬라가 美 LA서 짓는 '신개념 슈퍼차저', 올 연말에 개장

-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사 중인 신개념 슈퍼차저가 올 연말에 개장할 전망이다 (글로벌이코노믹 2024.1.14) 김현철 기자
- 13일(현지시간) 테슬라라티에 따르면, 테슬라는 LA 중심지에 속하는 웨스트할리우드에 위치한 부지에서 당초 계획대로 식당과 드라이브인 영화관을 부대 시설로 갖춘 복합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축 공사를 지난해 11월 시작함
- 현재 해당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유리창마다 태양광 패널, 미래엔 빌딩숲이 발전소

- 일본 화학기업 카네카가 빌딩 벽면에 붙여 발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패널 건자재의 생산을 2030년까지 3배로 늘림 (파이낸셜뉴스 2024.1.11) 김경민 특파원
- 향후 건자재 일체형 태양광 발전이 활성화되면 현재 일본 국내에서 가동되는 태양광 발전에 맞먹는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됨
- 회사는 2030년까지 현재의 3배인 연간 30만㎡ 생산량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도쿄 돔 6.4개를 모두 두를 수 있는 규모임

1. SK에코플랜트, 美 네바다주와 폐배터리 재활용사업 등 협력 논의

- SK에코플랜트는 14일 리사이클링 전문 자회사 테스(TES)의 라스베이거스 공장에서 조 롬바르도 미국 네바다주 주지사와 비즈니스미팅을 가졌다고 밝힘
- 이날 미팅에서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과 롬바르도 주지사는 SK에코플랜트 및 테스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력을 비롯해 전기·전자폐기물(E-waste) 사업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눔
-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미국 네바다주는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요충지이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아 글로벌 넷제로 달성에서도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며 “SK에코플랜트의 환경·에너지사업과도 맥을 같이 하는 만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힘

(전자신문 2024.1.14) 윤희석 기자
(핀포인트뉴스 2024.1.14) 김수현 기자

2. 삼성SDI, 캐나다니켈 지분 투자로 북미 배터리 소재 공급망 강화

- 삼성SDI가 전기차(EV)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캐나다 니켈 생산업체 ‘캐나다니켈컴퍼니(Canada Nickel Company, 이하 캐나다니켈)’에 1850만달러(약 244억원)를 투자했다고 글로벌엔메일이 13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번 투자로 삼성SDI는 캐나다니켈의 지분 8.7%를 보유하게 됨. 또, 삼성SDI는 캐나다니켈의 ‘크로포드(Crawford)니켈-코발트 황화물 프로젝트’의 지분 10%를 1억500만달러(약 1380억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됨. 양사간 합의에 따라 생산량의 20%에 대해 15년간 연장 가능한 추가 권리도 보유하게 됨
- 이 파트너십은 EV 배터리 제조의 핵심 부품인 니켈과 코발트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됨

(글로벌이코노믹 2024.1.14) 홍정화 기자

3. STX, 남미 리튬 사업 확장… 페루 리튬 광산 지분 인수

- 글로벌 종합상사인 STX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리튬을 확보하고 리튬 정광(제련을 거쳐 순도를 높인 광물) 트레이딩을 위해 페루 현지 리튬광산의 지분을 획득했다고 10일(현지시간) 레디민(redimin)이 보도함
- 이는 STX가 리튬 사업을 확장하고, 전 세계 리튬의 약 60%가 매장된 남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의 일부임
- STX는 페루 동남부 푸노주에 위치한 리튬 광산의 지분과 리튬 정광의 운송·판매 오프테이크(생산물 우선확보권) 권한을 확보함

(글로벌이코노믹 2024.1.12) 홍정화 기자

4.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 전기차 본격 생산… 현지 정부 인센티브 지원

- 기아가 유럽 생산기지인 슬로바키아 공장 증설과 동시에 늘어나는 공장 생산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본격 전환함
- 지난해 3분기 기준 현지 공장 가동률이 100%를 초과한다 올해부터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로 했기 때문임
- 투자 금액도 산정됨. 오는 2028년까지 4년에 걸쳐 1억800만달러(약 1430억원)를 투자할 예정임. 이는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 금액(약 2540억원)의 일부로, 구체적인 생산 라인 전환 투자 비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현지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도 확보함. 슬로바키아 경제부(Ministerstvo Hospodárstva Slovenskej Republiky, MHSR)는 소득세 감감 형태로 2995만유로(약 430억원)를 지원하기로 함

(더구루 2024.1.11) 윤진용 기자

5. SK 계열사, 차세대 배터리-ESS 공략 속도… “협업하고 합작사 짓고”

- SK 계열사들이 협업, 합작사 설립 등을 통해 차세대 에너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음. 국내에 집중돼 있던 사업 영역을 해외, 차세대 에너지로 확대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 17일 SK온은 지난주 폐막한 ‘CES 2024’에서 솔리드파워와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또, SK가스과 SK디앤디는 미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에이펙스클린에너지와 합작법인 ‘SA 그리드 솔루션’을 설립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 대한 투자 계약을 16일(현지시간) 체결함

(이투데이 2024.1.17) 김해욱 기자
(아시아경제 2024.1.17) 최서윤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1.12(금) ~ 2024.1.18(목)

제공일시 2024 03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호주 정부, 기업의 기후공시 의무화하는 신규 법안 초안 발표

(임팩트는 2024.1.17) 유미지 기자

- 지난 12일(현지시각) 호주 정부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후 변화,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기후 관련 보고 의무를 도입하는 새로운 법률 개정안 초안을 발표함
- 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깨끗하고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호주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임
- 호주 재무장관 짐 차머스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친환경 에너지의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고 기후 변화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함
- 이 법률 개정안은 2022년 12월 호주 재무부가 기후리스크 공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디스커버리 컨설팅'을 시작한 후 2023년 6월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의무화 요건 시행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 지난해 10월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는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보고 표준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 법안이 의결 수렴 과정을 거쳐 통과되면 호주는 기업의 모든 거버넌스 또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 통제 절차뿐만 아니라 물리적 기후 위험 및 기회, 측정 기준 및 목표에 대해 보고해야 함
- 새로 제안된 법안은 모든 상장기업 및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연례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됨
- 호주 금융당국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4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 특정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감사된 연간 재무 보고서를 올해부터 ASIC에 제공해야 함
- 이 법안에는 또한 Scope(스코프) 3 보고에 대한 단계적 접근 방식이 포함돼 있음. 기업은 공시 시작 일로부터 추가로 1년 동안 간접 가치 사슬 배출량과 보고 책임 적용에 대해 보고할 수 있음. 2027년 6월 말까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일부 면책이 적용됨
- 또한, 재무제표와 유사하게 기후 변화 관련 보고에 대해서도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함. 기업은 재무제표 감사기관으로부터 인증 보고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
-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9일 마감할 예정임